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과거에 심은 종자 지금 내속에 있어

☞ 17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누구든 살아 있는 동안에 기필코 다 녹여버려야 하겠다, 깨끗이 설거지를 하겠다 이래야 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문 중소기업을 운영해오다가 얼마전에 부도를 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산에 올랐다가 한 절에 들렀는데 거기서 우연히 현대불교신문에 난 스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 보니까 스님께서는 살아도 한 번 살고 죽어도 한 번 죽는 한 철 인생인데 살든 죽든 제 주인공을 딱 믿고 여여하게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뭔가 마음에 와 닿는 듯도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뚱이는 승객이 꽉 들어찬 배와 같고 주인공은 선장이다, 주인공이 왜 선장이냐 하면 이 몸뚱이를 형성시키고 끌고 가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많은 승객을 태워주고 배를 끌고 가는 주인이다, 이것이죠. 몸뚱이는 선장이 끌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살고 있는 것이 아주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말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어련히 알아서 잘 끌고 가랴만 승객들이 배 안에서 산다, 죽는다 하고 날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할 겁니다. 그와같이 내 몸을 배라고 하면 파도에 밀려 엎어지든 바로 가든 믿을 데라곤 선장 밖에 없으니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산다 하면서 선장을 딱 믿고 그에게 맡겨야지 뭘 어쩌겠습니까? 그런데도 굳게 믿는 마음이 못되고 좌불안석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속의 모든 중생도 우왕좌왕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까짓것 다 공했다는데, 공했는데 배를 탄 것은 어디 있고 안탄 것은 어디 있느냐, 파도 치는 것은 어디 있고 안 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며 여여하게 편안하게 빙긋이 웃고 지나가라 이것이죠. 그랬을 때 배는 무사히 파도를 건널 수 있다, 내게 닥친 혼란도 이겨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도가 났네 무슨 일이 터졌네 하는 것도 이 도리를 모르기에 부도가 나게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난 뒤에라도 믿고 맡겨서 수습을 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장, 그 놈한테, 주인공한테 맡기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세상이 다 뒤집히고 회사가 날아간다 해도 '선장!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지!'하면서 딱 맡겨라 이 소립니다.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바다 한 가운데서 이리 밀리고 저리 떠 밀리고 하는 판에 선장 밖에 더 믿을데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 것을 왜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자식이 물에 빠져 둥둥 떠내려 간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자식도 건지고 부모신세도 건질 수 있지, 마음이 요동을 친다면 자식도 못 건지고 나도 못 건집니다.

마음이 아니면 안됩니다. 일체만물만생도 마음의 근본이 아니라면 그렇게 들고 날 수가 없습니다.

안될 일은 맡겨도 안되는지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굳게 믿고 일체를 맡기라 하시는데 그렇게 믿는다 해도 안되는 일은 역시 안되는 게 아닌지요. 늘 그게 궁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기정체 파악이 진짜 화두

답 믿는 것은 뭘 할 요량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걸 나을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죽을 걸 살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대로 자기 주인, 참나를 믿는 것이지 어떠한 업보를 제거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하인인 이 몸뚱이가 주인을 믿는데 이유가 붙지 않듯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쁘든 좋든 내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 어머니 아닙니까? 내 어머니가 병신이라 해서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듯이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일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난 믿음이고 해결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난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리더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못 믿겠다면 뭘 믿겠다는 겁니까? 달리 믿을 데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을 안 믿는데 뭘 믿지요.

하인은 주인이 하는대로 따라갈 뿐이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따지지 말아라, 주인도 안 따지는데 하인이 왜 따지느냐 이겁니다.

자기 주인을 무조건 믿으라고 했더니 진짜로 믿지는 않으면서 무슨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조건을 단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 것과는 관계없이 저절로 '거기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공, 너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하고 무조건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는 그 속에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대치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맡겼으니까 이제 나에겐 책임이 없고 주인공 몫이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을 조급하게 쓰지말고 일단 맡겼으면 잘 되든 곳 되든 다 알아서 하라 하고 여여하게, 편안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로야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지 별겁니까? 그러니까 시자로서 뛰지 말고 자기 주인이 뛰게하라, 부처와 함께한 그 자리에서 뛰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 속에 부처가 따로 있어서 믿으라는 거 아니라 부처아닌 부처가 본래 그대로 있으니 그걸 진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오신통이 도가 아닌 이유

문 저는 전방 초소에 근무하는 장병입니다. 저희 부대 법당에 갔다가 현대불교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사대로 통신이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으신통에 대해서도 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여러분은 지금 다들 오신통을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팩스를 통해 주고 받는데 말이죠. 가는 것도 안 보이고 오는 것도 안 보이지만 오고 가지 않나요?

이걸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고 방편상으로 말해도 되는데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재료나 장치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해도 되겠지요.

천안통, 그러니까 저 천체망원경이 그렇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을 안방에 앉아서 볼 수 있으니 그렇지요.

천이통이라면 무선통신기라 할 수 있고 타심통은 저 거짓말 탐지기, 신족통은 팩시밀리, 또는 초음속 비행기, 숙명통이라면 컴퓨터가 있고….

이런 다섯가지 능력이 여러 장치를 통해 다 발휘되고 있으니 요즘 같은 세상에 오신통인들 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만들어 내고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고 또 내 마음으로써 입력한다면 이게 바로 내 육신으로도 가능하다, 이 몸뚱이에 오신통의 재료가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섯가지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내 참부처를 진짜로 믿고 마음으로써 입력을 한다면 대뇌에서 소뇌를 거쳐 중뇌에서 책정을 해 사대로 통신이 된다, 우주 법계로 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뇌는 주장자 끝에 레이더망을 달아 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중생이 사는 국토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먹기에 따라 그 많은 중생들의 의식이 내 주심인 주장자 끝의 레이더망을 통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빛보다 빠르게 우주법계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전력 자력 광력 통신력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물질로만 나가려 하고 현재의식으로만 매달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연구를 한다 해도 50%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는 연구대로 하되 본래 지니고 있는 누진의 힘을 발견하라, 오신통은 도가 아니니 마음이 계합된 심성과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도리가 계합되지 않으면 어떤 분야의 과학도 50% 밖에 안되어서 미완성에 그치게 됩니다.

화두공부 잘못인지요

문 스님께서는 역대 조사들의 공안 참구나 화두를 드는 참선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화두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잘못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우리는 누구나 참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 중 어느 것도 고정된 게 없고 우리들 자신도 어느 때, 어느 것을 할 때 나라고 고정되게 말할 수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찰나 찰나 돌아가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없는 이 '나'가 바로 화두란 말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자연스런 의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런 의정을 제쳐두고 왜 남이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의정을 일으키려 하고 그게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엔 너무 배운게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문명도 발전해서 옛날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주는 의정에 매달려서 놓칠까봐, 끊어질까봐 애쓰지 말고 자기를 봐라, 자기 몸을 보고 자기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몸은 수많은 중생의 국토 그 중생들이 한마음되면 빛보다 빠르게 법계와 통신

옛날 그때 그 시절엔 화두를 주어 공부하게 하는 방편이 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으니 공부 방편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눈코뜰새 없이 바쁜 때에는 그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일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날 보고 바꾼다고 하지만 이건 바꾼 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는데 방편이 다르고 이름이 달랐다는 것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공부하실 당시에도 화두를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두를 들고 깨우치신 것도 아니구요.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에 의지하고 너 자신을 보라고 하셨지 남에게서 화두를 받아서 공부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화두를 든다 안든다 하는 것도 다 방편이니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옛날 선지식들께서도 '네가 나온 자리로 한번 들어 갔다 나오너라' 그러셨습니다.

'무분별지' 강조하는 의미

문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분별지를 강조합니다. 스님께서는 일체를 놓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다보면 세상과 동 떨어져 살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답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분별하면 통달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벌레 속에 들어가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또 돼지 속에 들어간들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삼독이나 번뇌망상 거기에도 걸림이 없고 분별이 없어야 한다.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분별이 나오지 않고 부처님과 한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쾌활하게 생각하지 말라. 모든 것은 평등한 고로 그렇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안으로 천지를 다 꿰뚫어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다'하셨습니다. 우주 천지의 소리를 다 듣는다 해도 도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신통을 다 알아도 도가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고 저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고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 보아도 도가 아니다., 왜 그랬겠느냐?

자유자재권을 갖고 무심법으로 행할 수 있어야 진짜 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오신통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어야, 실천궁행할 수 있어야 진짜 도이지 오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발이 되어서 일체를 돌 아니게 건질 수 있고 아무 끄달림 없이 오고 갈 수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설사 오신통의 능력을 지녔다해도 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누진통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분별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는 알지만 진실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거름 삼아서 행으로써, 진실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들 실천하라고 하면 '글쎄 그게 이치로는 그런 줄 알겠는데 실천하기가 어디 그리 쉬우냐'고 합니다.

틀 밖을 벗어나야 통을 글릴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실천궁행하려 하지는 않고 이론으로만 그렇노라, 그렇겠노라 하고 있다면 영영 틀 밖을 벗어날 수 없고 통을 글릴 수도 없게 됩니다.

틀 밖으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심으로 믿는다면 밖으로 벗어 났느니 못벗어 났느니 할 것도 없이 믿고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

문 스님께 여쭙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이며 남전스님이 고양이 목을 내리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르침 바랍니다.

답 예전에 칠십먹은 노인네가 열 살 먹은 아이에게 '애비'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분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 아이가 나보다 먼저 늙었느니라'했더랍니다.

비행기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고 가는데 그게 서울 비행기라고 해야 맞을까요, 부산비행기라고 해야 맞을까요? 그거 둘이 아니질 않습니까?

달마는 어디 있고 동쪽 서쪽은 어디 있느냐? 그건 법문도 되고 공안도 됩니다.

한마음에서 천칠백 공안이 다 나오고 한마음 알면 천칠백 공안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랬죠.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많아서 문찾기 어려우니라 하고 말입니다.

다 슬기로운 마음에 달린 것이지요.

참나를 깨우치지 못하고는 이 도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묵은 빚을 아래위로 갚을텐데 그렇지 못하면 세세생생에 승진과 좌천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닐려면 머리에 신을 신고 다닐 줄 알아야 양면을 다 무불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남전스님 제자들이 동당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양이 한마리를 가지고서 이건 동당 고양이다, 아니다 서당 고양이다 하며 서로 싸움을 벌였더랍니다. 그러자 남전스님이 대중에게 '너희가 한마디 이르면 고양이를 살릴 것이고 이르지 못하면 고양이의 목을 치리라'했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을 베어 버렸는데 대중들이 모두 살생을 했다고 수군거리고 온통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그 사연을 듣더니만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돌아서더란 말입니다.

고양이가 동당으로 가든 서당으로 가든 그 고양이는 동당에도 매이지 않고 서당에도 매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동당이다 서당이다 해서 공연히 고양이만 목이 달아나게 한 것이지요.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도리 모르면 과학도 반쪽학문 분별심 뛰어넘어 실천궁행 하도록

협찬 한성민 인천시 남구 주안4동

삶은 꿈가 아니다

삶은 결코 꿈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5(영업), 팩스·(02)737-0696